

광주·전남 좀먹는 사이버기자

억대 이권에 공사현장 갈취·강매... 피해 심각

광주지검 '전면전' 선포...18명 적발·9명 구속

사이버기자의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공사현장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잡아 돈을 뜯는 것은 물론, 각종 이권개입이나 책자 강매, 광고 강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아 지역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광주지검이 지난 2월부터 사이버기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광주·전남에서만 무려 18명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사이버기자 폐해 위험수위=19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에 따르면 최근 검찰의 집중단속 결과 사이버기자 18명이 적발돼 이중 천모(49)씨 등 9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모 일간지 기자인 천씨는 2005년 1월부터 4년간 공사현장 등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잡아 돈을 빼앗고, 간행물 강매 등을 통해 무려 360차례에 걸쳐 7천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모(47)씨는 모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며 공사현장의 약점을 이용해 3억5천만원 상당의 골재채취권을 따내는 등 공사현장의 약점을 빌미로 돈을 뜯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주류를 이뤘다.

이밖에 모 인터넷신문 기자 송모(48)씨는 국회의원 등 인맥을 과시하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알선료 명목으로 3억원을 뜯어냈다가

검찰에 달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사이버기자들은 주로 건설업체나 폐기물처리업체 등 환경민원의 소지가 큰 업체를 대상으로 먼지, 소음, 진동 등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겨온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체 등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를 비롯, '광고 강요', '신문·책자 등 간행물 강매', '이권 개입' 등 사이버기자들의 갈취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검찰 '사이버기자 전면전'= 검찰은 경찰과 함께 사이버기자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을 나서는 한편, 광주·전남기자협회가 구성한 '사이버기자근절대책특별위원회', 광주지검

홈페이지(http://gwangju.dpo.go.kr/)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모으기로 했다. 검찰이 지역 사회와 힘을 합쳐 사이버기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언론사 난립이 사이버기자 횡포 부추겨=광주지검에 따르면 2월 현재 광주·전남 지자체에 등록된 언론사는 일간지 33개, 인터넷신문 97개, 주간지 108개, 월간지 51개, 계간지 17개 등 306개에 이른다. 이같은 언론사 난립은 인구 및 경제규모가 적은 지역에서 오히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길수 광주지검 특수부장은 "일부 부시·군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기자들이 많고, 이 가운데 사이버기자들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이 어렵다"며 "건전한 언론문화 확립과 기업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이버기자 척결에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최정희기자 choice@kwangju.co.kr

무등산 원효계곡 맑은물 공급한다

올 여름부터는 무등산 원효계곡의 맑은 물에 발을 담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무등산공원사무소는 19일 "3억5천만 원이 투입된 원효사지구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최근 완료돼 주변 상가에서 배출한 다량의 오수와 부유물을 정화, 하루 120m³의 맑은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미생물을 이용해 오수를 분해하는 하수 고도처리시설로 정화된 방류수는 하수오염지표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를 1ℓ 당 10mg 이하로 유지하고, 질소(N)와 인(P) 처리 등 총 5개 항목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됐다.

임희진 무등산공원사무소장은 "오수처리시설 개선으로 올 여름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 깨끗해진 원효계곡에서 편히 쉬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5분 해질 19시 33분 달돋이 02시 17분 달질 15시 11분

밤부터 비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다.

광주	차차 흐려져 비	15/29°C
목포	차차 흐려져 비	15/24°C
여수	차차 흐려져 비	17/22°C
완도	차차 흐려져 비	15/24°C
구례	차차 흐려져 비	12/30°C
해남	차차 흐려져 비	13/24°C
장흥	차차 흐려져 비	13/24°C
고흥	차차 흐려져 비	12/25°C
순천	차차 흐려져 비	15/26°C
영광	차차 흐려져 비	13/26°C
진도	차차 흐려져 비	14/24°C
전주	차차 흐려져 비	13/30°C
남원	차차 흐려져 비	10/29°C
옥산도	차차 흐려져 비	14/22°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목포 10:22	03:49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23:06	16:11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2.0m	여수 05:40	11:54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2.5m	18:14	--:--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5/21	13/26	14/25	14/26	14/28	14/26

'유령환자'로 억대 보험료 챙긴 요양병원 원장 등 15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은 19일 '유령 입원환자'를 만들어 의료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수 억 원을 받아 챙긴 광주 모 요양병원 조모(47) 원장 등 15명을 사기 및 의료법 위반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07년 2월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우울증에 시달려 입원시킨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의료보험공단 광주지부로부터 이 환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보험료 1천만 원을 가로챈 등 지난해 6월까지 '유령환자' 18명을 입원한 것처럼 꾸며 9천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병원 식당에 조리사와 영양사 등 3명을 고용 중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환자들의 식대 가산금 9천 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보험공단은 입원환자의 기본 식비 외에 식당의 병원 직영 여부, 영양사와 조리사 인원 등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가산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씨는 특히 의료기관과 요양원 7곳에서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 950만 원을 주는 등 '환자거래'를 해왔으며, 권한이 없는 임상병리사와 총무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조제하도록 지시 및 묵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지산딸기 맛있어요"

19일 광주 북구청과 용전마을 딸기작목반이 마련한 '딸기 체험학습장'에서 어린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직접 따낸 유기농 '지산딸기'를 맛보고 있다. 딸기 체험학습은 오는 22일까지 열린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올 고교별 대학 진학률 월말 공개

'학교알리미' 서비스 파장

전국 모든 고교의 올해 대학 진학률을 비롯한 각종 학교정보가 이달 말 다시 한번 공개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달 말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서비스에 2008학년도(2009년 4월1일 기준) 학교정보를 28개 항목에 걸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학교정보 공개는 지난해 12월1일(2008년 4월1일 기준)에 이어 두 번째로, 각 학교의 1년간 변화상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 2월 고교 졸업생의 국내대학(대학교·전문대학) 및 해외대학 진학 현황이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교육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학교정보가 공개됐을 당시에 도 각 고교의 대학 진학률이 최고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고교별로 순위가 매겨지기도 했다.

정보공개 대상은 전국의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을 포함해 총 1만1천418곳에 달한다. 교과부는 이달 28~29일 학교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연필뉴스

소 생고기 먹은 12명 집단 배탈증세

광주 신창동...역학조사

소 생고기를 나눠 먹은 이웃 12명이 집단 배탈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9일 광주시 광산구 보건소에 따르면 김모(47·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씨 등 12명이 지난 16일 설사와 두통 등 배탈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서 급성 위장염 진단을 받은

이들은 12일 오전 10시에 김씨가 한 평의 한 정육점에서 사 온 쇠고기를 나누어 먹은 뒤 같은 날 오후 각자 집에서 날 것으로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생고기를 나눠 먹은 사람들이 배탈증상을 보인 점으로 미뤄 쇠고기가 더운 날씨 탓에 상한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남은 고기를 수거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역학조사팀을 의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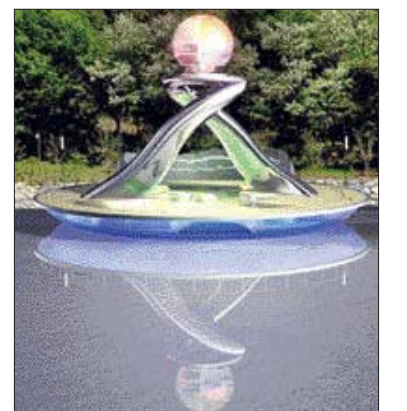
/광산=기원태기자 wrtee@

광주 풍암호수에 서구 상징물 설치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에 구(區) 상징물이 설치된다.

서구는 19일 행정서구 상징물 현상 공모전에 참여한 10개 작품을 심사한 결과 진시영씨가 출품한 'Harmony 화합(사진)'이 최우수작에 뽑혔다고 밝혔다. 서구는 또 양월수씨의 '돋움'과 김영남씨의 '무한 행복'을 우수작으로 뽑었다.

이번 평가에서 'Harmony 화합'은 밝고 화려한 이미지의 조형물과 섬터 등을 마련,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Harmony 화합'은 폭 20m, 높이 15m 규모로 광주의 빛과 태양, 산, 물 등을 원형 모양의 스카이라인을 조형한 특징이다.



서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톨립동산과 생태습지 등과 한데 어우러진 광주 최고의 명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7 광주일보 추천 제주도 여행 상품!

세찬해파리, 1천 마리 다문 선 제주도 - 새로운 워터파크로 더욱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여시야나 항공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제주도 여행

- ▶ 상품 1. 제주도 일주일 여행권 219,000원 - (항공료 200,000원 14~07.14) (항공료 포함) (항공료 포함)
- ▶ 상품 2. 제주도 일주일 여행권 219,000원 - (항공료 200,000원 14~07.14) (항공료 포함) (항공료 포함)
- ▶ 상품 3. 제주도 일주일 여행권 219,000원 - (항공료 200,000원 14~07.14) (항공료 포함) (항공료 포함)
- ▶ 상품 4. 제주도 일주일 여행권 219,000원 - (항공료 200,000원 14~07.14) (항공료 포함) (항공료 포함)

KBS 1박2일 "올레길" 탐방

코끼라스, 해피타운, 유리해설, 선내와 나무꾼, 일출랜드, 송바레힐, 힐링여행 컨서츠

▶ 상품 1. 제주도 일주일 여행권 219,000원 - (항공료 200,000원 14~07.14) (항공료 포함) (항공료 포함)

▶ 상품 2. 제주도 일주일 여행권 219,000원 - (항공료 200,000원 14~07.14) (항공료 포함) (항공료 포함)

▶ 상품 3. 제주도 일주일 여행권 219,000원 - (항공료 200,000원 14~07.14) (항공료 포함) (항공료 포함)

▶ 상품 4. 제주도 일주일 여행권 219,000원 - (항공료 200,000원 14~07.14) (항공료 포함) (항공료 포함)